조계종 사노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11월 9일, 서울 조계사 출발
희생자 가족 공간마련 촉구
11월 11일 이태원역서 회향
이웃종교도 동참, 연대약속



조계종 사노위가 11월 9~11일 조계사에서 이태원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의 공간마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1월 9일 조계사를 출발해 이태원역을 향해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행진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포함해 스님 14명이 동참한 이날 오체투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 공간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진행됐다. 출발에 앞서 지몽 스님은 먼저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와 고통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에 몸을 뉘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어 정부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스님은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실감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있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염원하기도 했다. 스님은 "희생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첫 출발점일 것"이라면서 "공간에서 소통하고 나눈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조사와 진상을 국가는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이웃종교도 동참, 적극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박영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 "스님들의 오체투지를 보고 정부가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오체투지는 조계사를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마무리 됐다. 희생자 추모 및 부상자 쾌유에 그치지 않고 진상규명 · 희생자 가족 공간 마련 촉구 등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동선이다.

사노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가족 공간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존중받고 생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우크라이나 난민위해 1000만 원

11월 9일, 진우 스님 예방
"불교 본연의 역할에 모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자비정신"이라며 혜도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혜도 스님은 "최근 신문을 통해 화계사서 출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이 현지에서 난민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도들과 뜻을 모았다"면서 "마침 총무원장 스님도 명상센터 운영에 큰 뜻을 두신 만큼,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혜도 스님과 함께 배석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에게 "한마음선원은 그동안 각종 자비나눔으로 종단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스님들을 잘 보필해 앞으로도 종단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전환위한 불교 실천 과제는?

KCRP, 11월 4일 탄소중립 실천방안 토론
이철한 · 서재영 교수, 한주영 국장 등 발제

7대 종교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18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막식' 을 갖고 깨끗한 지구 만들기를 위해 화합 · 연대한 가운데, 불교계가 첫 주자로 나서 탄소중립과 전환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1월 4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by필원에서 '7개 종교 연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불교 토론회' 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생명, 생태 위기를 통해 본 불교사상과 가르침' 을 주제로 발제한 이철한 동국대 교수는 '에코 다르마(Ecodharma)' 를 강조했다. 에코다르마는 생태적인 관심에 불교 가르침과 그에 연관된 영적 전통을 결합한 것이다. 이 교수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짐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음 △모든 존재는 소중함 △모든 존재에 자비를 베품 △다음 생을 위한 터전 △모든 것은 마음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구를 남용한 탓에 심각한 생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생태위기는 불교사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 교수는 "불교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고 머물다 부서지고 사라지며 변화하며, 이 변화는 어떤 원인과 조건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중생과 자연환경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돼 있으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으로 가는 불교의 지혜, 자비의 생명윤리와 소욕지족 정신' 을 발제했다. 서재영 교수는 음식 절제를 통한 붓다와 불교 수행전통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발우공양 전통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채식 중심의 사찰음식과 탄소배출 감소 △자급자족의 수행전통과 푸드 마일리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인이 수행자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본받고 어떻게 오늘의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각자의 삶이 소박해야져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욕망은 절제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구를 가볍게 밟는 삶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도 성장을 넘어 탄소중립과 전환을 위한 불자 실천을 발제했다. '환경보살' 의 녹색생활 실천을 강조한 한 사무총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삶,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삶,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들을 생각하는 삶,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익과 코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넓게 보는 자리이타의 삶을 살기 위해 실천목록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환경보살의 기도' 를 권선하기도 했다.

발제 후에는 이제열 불교경전연구원장과 오용석 원광대 학술연구교수, 최광수 (사)에코붓다 대표가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임은호 기자**

자승 스님, 윤대통령과 환담

11월 8일 오전 봉은사 찾아
원로 스님들에게 조언 구해


자승 스님은 윤대통령에 "유연함을 가져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 원로 스님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해결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대통령실은 11월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 봉은사를 방문해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원로의원 자광 · 도후 · 지명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환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께서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혜거 스님은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4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추모위령법회' 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첫 사과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다른 종교계 원로들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국민이 다시 화합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일시: 11월 1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어떤 것의 본래적 성품인 '본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은 불교와 동서양 철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본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이필원 외 /신국판양장/432쪽/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